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5-7105, 010-7195-0033, tae1l@pspd.org)

제 목 [보도자료] 2017년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

날 짜 2017. 1. 3. (총 4 쪽)

보 도 자 료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 개최

헌재의 조기탄핵이 새해의 첫 단추 되어야

일시 및 장소 : 1월 3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 · 정강자 · 하태훈)는 2017년 첫 일정으로 1월 3일 (화)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
- 박근혜와 최순실 등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 밝혀진 이후 분노한 천만의 촛불 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자 처벌을 요구해 왔음. 이제 시민들은 헌재의 조기탄핵과 박근혜 정권의 적폐 청산,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개월 넘게 촛불이 타올랐던 광화문광장에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시민과 힘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참여연대 기자회견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
- 일시와 장소 : 1월 3일(화)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참가자 : 참여연대 공동대표단과 임원 및 활동가 일동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 1. 신년 기자회견 순서

■ 붙임 2. 신년 기자회견문

▣ 붙임 1. 신년 기자회견 순서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 참여연대 신년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1. 공동대표 인사말 : 하태훈, 정강자 공동대표
2. 임원 및 활동가 결의 발언
3. 공동사무처장 결의 발언 : 박근용,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4. 신년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 2. 참여연대 신년 기자회견문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새해는 근래 몇 해와는 무척 다릅니다. 절망과 거짓의 어둠이 사라지고, 희망과 진실의 빛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이 천만 촛불로 타올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연대 또한 정의로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희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많이 담아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또한 2017년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1987년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주권자인 시민의 힘이 어떤 것인지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10월말부터 천 만 명이 동참한 촛불시민혁명입니다. 그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분노는 검찰수사를 이끌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만들어 냈습니다. 촛불 민심에 부응해 국회는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촛불은 이제 현재에 조기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시민의 힘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 2월 국회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친 테러방지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만든 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여소야대의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힘,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과 ‘구의역 19세 청년노동자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접한 후 시민들이 보여준 변화에 대한 갈망, 9월말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강제부검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2016년을 보내고 맞이한 2017년입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에 담긴 탄식과 분노, 저항이 2016년을 덮었다면, 2017년은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새로운 나라 만들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2017년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신속히 결정하며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기 탄핵은 촛불시민혁명을 마무리하기 위한 새해의 첫 단추입니다. 더 나아가 2017년은 정의를 짓밟고 진실을 가려온 박근혜와 모든 공범자들을 엄벌하고,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받는 곳으로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및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7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중심의 경제를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균형을 이룬 경제로 바꾸고, 특혜와 반칙이 사라진 공정한 경제로 바꾸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궁핍과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꿈과 미래를 일구어가는 사회로 바뀌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대결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군사 및 외교 갈등을 고조시키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행정부와 사법부, 모든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열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참여연대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연 2017년 희망의 문을 통과해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새로운 사회로 가는 힘찬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니다.

2017년 1월 3일
참여연대